

Mario Botta 주거 건축의 특성 분석

An Analysis of Mario Botta's residential design

조 희 라*
Cho, Hee R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ario Botta's residential design.

The characteristics of Mario Botta's residential design are following as :

1. The residential design of Mario Botta planned from 1960's to 1970's is based on the style composition method of modern design, specially by the influence of Le Corbusier and Louis I. Kahn. Botta's residential design of the 1980's is generally affected by A. Palladio, and is characterized as the representation of classic standard. The residential design of the 1980's shows the establishment level of Mario Botta's residential design, and produces particular Botta's facade.

2. The characteristics of Mario Botta's spatial composition on residential design could be implicated by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ach floor which is divided by three floors, simple and primitive volume which has a symmetry, opening through the massive elimination on the center of front, double skin, the contrast between void and solid, and the inflow of light through the top-light.

3. Most Botta's residential designs have Loggia in the center of facade working as a buffer space which joins outside and inside space together. They also lead the spatial continuous flow. The inside space is combined by the light coming through top-light and vertical opening.

4. They have high accomplishment in complicating details. They show the outside design of a horizontal belt according to the module of concrete block and the decorated design using compositional materials such as an unevenness piled up askew concrete block.

I. 서론

마리오 보타(Mario Botta, 1943~)는 외부로부터 문화적 영향을 재해석하면서 티치노 지역의 예술적 잠재력을 응축시키는 지역의 정수를 보여 주었다. 그는 건축은 장소성의 실현이라는 신념 하에 원형적, 지역적 기억과 연결된 장소성을 풍토적 표피로 감싸는 진정한 티치노의 대표적 건축가이다.

그는 1960년대 중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독특한 건축 어휘를 정립하여 왔다. 초기

에는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의 가르침을 토대로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와 루이스 칸(Louis I. Kahn)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주로 주택 설계를 통해 독자적인 건축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몇 가지 기본 원칙과 결정요인이 함축되어 있는 일관된 공간 구성 수법이 내재해 있으며, 로지아(Loggia)라고 일컬어지는 옥외 테라스 공간 등 몇 가지의 테마가 반복하여 사용되면서 작품에 따라 각기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보타의 건축적 특성은 주로 주택 설계를 통해 확립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마리오 보타의 1960~70년대의 작품으로 Stabi

* 정희원, 순천경암대학 건축디자인과 전임강사

o(1965~67), Cadenazzo(1970~71), Riva San Vitale(1972~73), Manno(1975), Ligornetto주택(1975~76)과 1980년대의 작품으로 Pregassona(1979), Massagno(1979~81), Stabio(1980~81), Viganello(1981~82), Origlio(1982), Morbio Superiore주택(1982~83)을 대상으로 삼아 그의 주거 건축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방법은 먼저 마리오 보타 건축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주택의 시기별 작품분석을 통하여 작품 전개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그 발전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주택 공간구성의 특성을 결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Mario Botta 건축의 특성

마리오 보타의 건축적 특성으로는 개체들이 명확한 질서를 가지고 배열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전체성을 획득하게 하는 명료함과 엄격한 비례와 규범을 통한 고전성을 들 수 있다.

역사적 도시의 상실은 단편적인 기반들에 의해 보상될 수 있다는 깊은 신뢰에 바탕을 둔 마리오 보타의 건축은 장소의 복원을 위해 풍토건축과 고전적 전통을 강조하면서 과거로부터 전수된 언어로서의 건축을 재개발 하려 한다. 그에게 전통은 기본적 이미지들 사이의 하나의 선택이며, 지역적으로 의미있는 유형들의 모임으로서 존재한다. 그는 진실된 건축은 그 자신의 시대정신에 속해야 함을 강조하여, 그의 건축은 일반적인 동시에 지역적이고, 현대적이면서 고전적으로 표현된다.

슐츠(C. Norberg Schulz)는 마리오 보타의 형태구성원리 특징을 근대건축의 중요이론, 특히 르 꼬르뷔제, 루이스 칸, 카를로 스카르파의 직접적인 영향과 고전건축의 재해석으로 설명¹⁾하고 있으며, 또한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는 마리오

보타 작품의 기하학적 단순성과 중심성을 강조하는 평면의 9분할 등의 특징을 설명하며, 팔라디오(A. Palladio)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²⁾

건축의 근원적인 지점은 건축형태가 발생하는 장소와 시기, 즉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자연과의 대치이다. 그리고 이 대립을 통하여 건축작품은 인간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 자연과의 대립은 건축에 경계성을 요구하는데, 보타의 건축에서 우선 특징적인 것은 이 경계성이 분명하고 똑똑히 의식되어 있는 점이다. 이것은 보타의 작품이 대략 enclosure, 즉 벽에 의해서 외부와 내부를 매우 엄격히 구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기둥을 세워서 도리를 걸치는 구법은 거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타의 작품에서는 주위 벽이 건축 형태를 구성시키는 것으로써 공간구성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유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타의 작품은 모두가 집중형 형태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중합형(重合型)의 구성은 거의 볼 수 없다. 즉 벽이 기준점(datums)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평면은 구심적으로 되는가, 대칭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형태적 측면에서 보면 보타의 건축형태는 좌우대칭의 구성을 기조로 한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이다. 그러나 그들이 단순한 3차원의 입체에서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은 벽에 새겨 넣거나 벽을 절단하고 있는 개구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개구부를 통하여 주위 풍경을 안쪽으로 끌어 들인다. 그 관계는 필요하고 또한 충분한 것이며,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대체할 수는 없다.

2. Mario Botta 주거 건축의 시기별 특성

1) 1960~70년대 주거건축

1960~70년대에 계획된 마리오 보타의 주거 건축은 근대 건축의 형태구성수법, 특히 르 꼬르뷔제와 루이스 칸의 영향을 기본으로 출발하고

1) C. Norberg Schulz, 김선수의 1인역, 세계의 건축가 I-마리오 보타, 건우사, 1985, pp.9~11

2) Charles Jencks, Mario Botta and The New Tuscanism, Architectural Design, 1983 9/10, p.85

있다.

최초의 주택인 Stabio주택(1965~67)은 르 꼬르뷔제의 건축이념과 건축의 5원칙에 대한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노출 콘크리트의 사용과 개구부의 처리, 진입부에 부분적으로 사용된 필로티, 정원에서 3층 옥외 테라스로 이어지는 독립된 계단의 처리 등은 르 꼬르뷔제의 영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Stabio주택의 평면 형식 및 공간 구성을 보면 초기에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가 즐겨 사용한 전형적인 층별 공간 배분이 이루어져 있다. 즉, 1층에는 부공간인 차고, 서재, 보일러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주공간인 거실, 주방, 식당 그리고 부부침실을 두고, 3층에 침실과 가족실을 두고 있다.

1970년대에 계획된 Cadenazzo주택은 루이스 칸의 건축어휘인 콘크리트 블록의 사용과 원형 개구부의 처리 등이 나타난다. 이 주택은 1층에 주공간인 거실과 주방, 식당이 있고, 2층에는 서재만 있을 뿐 대부분의 공간이 2층 공간과 통층되어 있으며, 최상층인 3층에 침실들이 배치되어 있다. Cadenazzo주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후의 로지아가 갖는 성격이 바로 이 주택의 테라스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로지아의 완충공간으로서의 성격과 형태상 보여주는 강한 빛과 그림자의 대비, 내부 공간의 채광 방식 등이 이 테라스에서 모두 시험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주택의 중앙부가 아니라 변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위상이 내부 중앙에 있는 거실보다는 아직 낮음을 나타낸다.

초기 주택의 구성은 근대 건축의 구성적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나, Riva San Vitale주택에 이르러 이전 주택에 대한 새로운 구성적 접근을 시도한다. 특히 개구부 구성은 전체 파사드를 점유하고 있는 구성 요소의 특징으로써 보타 건축의 새로운 전기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개의 장방형이 L자로 연결된 형상을 가진 개구부는 4면이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어 있으며, 공간 구조를

그대로 외부에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간 구조를 형태에 표출한다는 원칙은 Cadenazzo주택에서와 동일하게 지켜졌으며, 이후의 주택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브리지에서 현관홀, 서재, 호수에 면한 테라스로 이어진 Riva San Vitale주택은 아래의 2층에 주침실과 어린이방이 있다. 침실들은 2층분의 천정 높이를 가진 거실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일부가 열려있다. 그리고 거실, 식당에서는 산, 호수 양쪽을 바라볼 수 있는 테라스에 나갈 수 있으며, 이것은 순로의 최종지점이다. 또한, 이 주택에서 내·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로지아는 채광과 시야를 조절하는 주택의 중심 공간이 되었다. 따라서, Riva San Vitale주택은 보타의 건축어휘가 정착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Manno주택에서 보여지는 지역적 구성요소의 도입은 보타 건축의 기본적 상징성과 관련 맺고 있다. Manno 주택의 전체구성의 중요한 지배적 요소인 큰 아치는 칸이 자주 활용한 완만한 큰 아치에서 전례를 찾을 수 있으며, 그 형태는 후에 프리부르그의 연방은행(Bank at Fribourg, 1977~82)에서도 나타난다.

1975년에 계획된 Ligornetto주택은 근대건축의 구성원리와 지역적 특성의 결합으로서 보타 건축의 기본적 원리를 보여준다. 이 주택에서 단부나 모서리에 있던 로지아의 위치가 중앙으로 옮겨졌으며, 이곳에 진입부의 통층 공간이 통합된다. 3층으로 구성된 Ligornetto주택의 1층은 현관과 창고뿐이고, 2층에는 거실, 주방과 식당이 위치하며, 3층에는 주침실과 부속 욕실, 거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서재가 있고, 천정 끝의 top-light가 빛을 이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유리창이 있는 공간인 거실, 서재, 주침실은 옥외와는 직면하지 않고 중앙의 커다란 슬릿에 면해있다.

2) 1980년대 주거건축

1980년대의 주택은 마리오 보타 건축의 정립된 단계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특징은 1960~70년대에 나타나는 파사드와 고전건축의 파사드 구

성원리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마리오 보타의 독특한 파사드 구성을 창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타의 1980년대 주택작품은 고전적 규범의 표현으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언급은 1979년에 계획된 Peggasona주택을 출발점으로 간주하며, 이 주택은 고전적 규범인 균제대칭(Symmetry)의 형태적 안정을 의도하는 것으로, 고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파사드의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마리오 보타 건축의 모뉴멘탈리티(Monumentality)로 대변할 수 있으며, 파사드가 지녀야 할 상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Peggasona주택의 구성은 팔라디오의 중심적 구성에 깊이 연루된 실제적 인용으로 설명된다. 보타와 팔라디오의 연계성은 작품의 구성원리의 비교로서 더욱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팔라디오의 빌라는 이탈리아인 주택의 정직한 요구, 즉 중심축에 로지아와 커다란 홀을 설치하고 양측에 두 세 개의 다양한 거실이나 침실을 배치하며, 그 사이의 공간을 여분의 공간 혹은 계단으로 구성하는 9분할(Nine Squares)의 기하학적 패턴에 적용되었다. 또한 이같은 9분할은 팔라디오건축의 주개념인 중심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개의 실, 그리고 실과 실의 조화로운 비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마리오 보타의 주택 평면 구성원리도 동일한 9분할의 원리를 반복 사용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 평면 구성원리는 명확히 팔라디오의 9분할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찰스 젠크스는 보타의 9분할적 평면구성수법을 팔라디오와 마찬가지로, 평면과 단면에서의 기본적 공간 배치나 전망을 위한 정위(Orientation)의 해결로써 대칭적인 변형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³⁾ 그러므로 보타와 팔라디오는 균제대칭 변환의 가능성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부분과 전체의 조합을 명확히 구성할 수 있는 9분할의 구성원리를 가지고 구성적 중심성을 부여하고 있다.

1980년대 보타 주택의 파사드와 공간과의 관

계는 로지아를 중심으로 한 구성적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파사드의 2층 중앙에 위치한 로지아는 빛에 의한 음영효과로써 공간의 깊이를 암시하고 있으며, 상부의 top-light에서 떨어지는 빛은 로지아의 형상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내·외부의 완충 공간은 각 기능과의 연결에 의한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부 공간의 통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완충 공간을 표현하는 개방성과 양 측면 공간의 폐쇄성의 대립이라는 내부 공간 표현의 이원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Massagno주택은 3층 구성으로 top-light의 천정과 콘크리트 블록 등 2개의 벽으로 구획된 '빛의 우물'이 주택의 중심을 이루며, 그 주위에 방이 배치되어 있다. 상부로부터의 빛을 차단하여 극적 공간이 된 로지아는 대형 미닫이문을 설치하여 개폐의 가변성을 부여하였다. 이는 로지아 공간의 중요성과 집중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주택의 2층에는 거실, 식당, 테라스가 있으며, 3층에 주침실과 어린이 방이 있고, 후면 북쪽에 욕실과 계단이 배치되어 있다.

Stabio(1980~81)주택에서 중앙축의 top-light와 집의 볼륨을 가로지르는 슬리트는 2층의 거실에 자연광을 보내는 동시에 주택의 정면 디자인에서 한 요소가 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개구된 1층에는 기계설비를 설치할 공간과 놀이터가 있고, 2층에 거실과 식당이 있으며, 이곳은 완전한 자유를 지각시키는 공간이며 유리창을 통하여 바라다보는 풍경이나 천창을 통하여 바라보는 하늘도 전체를 구성한 요소로 되어 있다. 계단실의 양측에는 주방과 작은 서재가 있으며, 3층에 있는 2개의 어린이방은 욕실을 중심으로 분할되어 있다. 주침실에는 부속 욕실이 있으며, 계단실과 접한 부분이 층당되고 있다. Stabio주택은 로지아가 형태 구성의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부속해진 채광의 역할을 천창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Origlio주택은 Peggasona주택을 다소 변형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Morbio Superiore주택은 다

3) Charles Jencks, Op. cit., p.85

른 주택들이 장방형 평면을 취할 때 전면에서 좌우로 긴 배치를 한 것과는 달리 앞뒤로 다소 긴 형상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외적인 평면 형식은 로지아에 있어 깊이로 나타난다.

3. Mario Botta 주거 건축의 특성 분석

1) 장소성의 추구

마리오 보타는 그가 활동한 티치노 지방의 지역적 정서가 반영되고 대지 주변의 맥락을 고려한 장소성을 추구한다.

장소는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경관이나 건물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변증법적 대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보타의 주거 건축에서 나타나는 자연과의 대치적인 “단단한 상자”는 탑과 같은 모뉴먼트에 가깝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과의 균형관계를 의식하고 있음으로써 그곳에 조화가 존재한다.

일례로, Riva San Vitale주택은 이 지역에 한때 많이 있었던 전통적인 탑형 전원주택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티치노 지역의 농업적인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보타의 주택은 유추적 형태와 마감, 즉 매끄럽게 면이 처리된 콘크리트 블록과 사일로(silo)나 마굿간과 같은 셸(Shell)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전통적인 농업용 구조물에서 파생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⁴⁾

2) 평면 형식 및 공간 구성

(1) 마리오 보타의 주거 건축은 일반적으로 3개층으로 공간을 배분하고 있다. 1층은 부공간인 출입구 및 Open-Atrium, 몇 개의 작은 Service방들로 구성되며, 2층은 주공간인 거실, 식당, 주방, 기타 용도실로, 3층은 사적 공간인 침실과 가족실로 구성되어 있다.

(2) 주거 건축의 외관은 대칭성이 강한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블록의 단순한 기본 입체(Platonic

Solids)로 구성하고 그 속에 공간을 없앤다.

(3) 정면의 중앙부에 커다란 개구부를 두어 광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 개구부는 기본 입체를 원형이나 요철형(凸형)등의 상징적인 형태로 크게 도려내서, 그 내측에 거리를 두고 유리면을 설치하는 2중 피막이다. 그 2중 피막 사이는 테라스로 이용된다.

건물 정면의 대형 개구부를 제외한 나머지 벽체에는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매우 작은 개구부를 두어 대비시킴으로써 인상적인 볼륨을 구성한다.

(4) 중앙부에 가는 그리드상의 void를 만들고 거기에 top-light를 넣는다. 이 top-light에 의해서 거실과 식당은 좌우로 나누어진다.

아트리움과 로지아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은 완충 공간을 구성하여 내·외부의 공간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5) 계단은 벽으로 둘러싸고, 근대 건축에서 많이 사용된 void에 걸치는 열려 있는 계단은 초기의 Stabio주택(1965~67)을 제외하면 사용되지 않는다.

(2)의 방법은 서양에 있어서 전통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3)의 개구의 방법으로 상징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에서 새롭다. 이 2중 피막에 의해서 빛이나 바람, 비 등을 부드럽게 막음과 동시에 근대건축 일반에 결여되고 있던 상징성, 기호성이 만들어지지만, 이 개구의 방법은 보타가 사사하고 있던 루이스 칸이나 카를로 스카르파에게서 이어받은 것일 것이다. 프레임에 의한 2중피막은 주세페 테라니(Giuseppe Terragni)의 카사 델 파쇼(Casa del Fascio, 1936) 등 근대건축에서 많이 사용된 수법이지만, 벽에 의한 2중피막은 아마 루이스 칸이 처음이고 그것을 보타가 주택에 채용했다고 고려된다.⁵⁾

3) 파사드 구성

마리오 보타의 주거 건축에서 파사드는 부분

4) Kenneth Frampton, 정영철·윤재희역, 현대건축사, 세진사, 1990, p.592~593

5) 原口 秀昭저, 강병근역, 20세기의 주택 - 공간구성의 비교 분석, 화영사, 1995, p.93

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통합이라는 비례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의 근대 건축의 영향은 순수 기하학에 입각한 대칭 비례원리로 전환되고 있으며, 파사드에 구성된 개구부는 전체 파사드를 구성하는 기본 모듈로 간주하고 있다.

파사드의 구성은 수평성과 수직성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역동적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팔라디오의 중심개념인 위계적 구성으로써 중심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건물과 주변환경의 대립과 순응으로써 주택의 모뉴멘탈리티를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타 주택 작품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만나는 완충공간으로써 파사드의 중심에 로지아를 구성하여 공간의 연속된 흐름을 유도하고 있으며, 내부공간은 top-light와 수직 개구부를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해 통합되고 있다.

빛은 마리오 보타의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 음영에 의한 기교가 건물의 형태나 구성에 변화를 가져온다.

Stabio주택(1965~67)에서는 꼬르뷔제의 브리즈 솔레일(brise-soleil)을 이용한 로지아를 형성하고 있으나, 루이스 칸의 표층개념을 도입한 Cadenazzo주택에서는 내부공간에 수용된 적극적인 로지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건물의 로지아는 파사드의 정면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나, Ligornetto주택에 있어서 완충공간은 파사드의 중심적 구성 수법인 수직 개구부와 직접적인 연결을 갖고 있어 파사드 표현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내부공간은 수직으로 절단된 개구부에 의해 유도된 빛으로 통합된다. Peggasona주택의 삼각형 top-light는 팔라디오의 Villa Pisani(1542)의 페디먼트를 암시하는 구성적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마리오 보타는 근대건축의 특징인 수평지붕에 top-light를 부가하여, 하늘을 의미하는 Attic Story로 상징화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블록에 대한 재료의 변화로 표현되고 있는 기단은 대지와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마리오 보타의 건축을 대지와 하늘의 원형적 관계로

설명⁶⁾하고 있는 솔츠의 언급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

Manno 주택(1975)에서는 아래쪽까지 이르는 큰 아치와 윗쪽에 다수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었고, 정면에 세워진 파사드가 중심축 양쪽에 방이 늘어선 안쪽 볼륨과 길항(拮抗)작용을 하고 있다. 삼각형 평면에 뿌리를 내린 그 볼륨은 기하학 특유의 형태로 구애받으며 애매하게 로지아를 끼고 파사드와 떨어져 있다. 그 로지아는 톱 라이트의 보 구성이 큰 아치 중심부 위쪽까지 걸쳐진 것으로 설명된다.

4) 재료 및 디테일

마리오 보타의 주거 건축은 근대건축과 고전건축의 구성적 통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성재의 디테일효과는 고전건축의 의장적 표현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티치노지역의 전통적인 재료구축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벽은 건물 외부의 얼굴이며, 동시에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도구라고 말하는 마리오 보타는 콘크리트 블록(Block)을 이용하여 그의 벽에 대한 신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외벽은 콘크리트 블록의 모듈에 맞춘 가로 띠의 표현과 콘크리트 블록을 비스듬히 쌓은 요철 등 구성재를 소재로 이용한 장식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Viganello주택에서는 콘크리트 블록을 썩기형으로 쌓았는데, 이로 인해 빛과 그림자의 단편이 서로 어울려서 건물 정면에 생기를 불어 넣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Morbio Superiore주택의 외벽은 썩기형으로 놓은 블록과 보통 블록이 한 단마다 서로 어긋나게 놓여 있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외벽면에서 빛이 물결치고, 어두침침한 로지아의 슬리트가 보다 돋보이게 된다.




보타의 주택에서 외벽의 디테일은 전체 건물의 볼륨을 강화하고, 영역을 표시하며 건물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Stabio주택(1980~81)에서는 외벽의 블록 쌓기를 일부

6) C. Norberg-Schulz, Op. cit., p.19

표 1. Mario Botta 주거 건축의 특성 분석-1

주택명/지역 (연도)	계획 평면	평면 및 공간 분석	장소성 분석	건축배경 분석
Stabio (1965~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타의 전형적인 층별 공간 배분이 나타남 · L자형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마을을 향한 정원의 강조 · 장소성의 모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 Corbusier의 건축이념과 건축의 5원칙 활용
Cadenazzo (1970~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건축의 구성적 특징 · L자형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친 재료로 마감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토착성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uis I. Kahn의 건축어휘인 콘크리트 블록 사용과 원형 개구부 처리
Riva San Vitale (1972~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방형 평면 · 계단실을 중심으로 4영역으로 구분 · 인공탑의 느낌 · 어프로치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탑형 전원주택과 간접적으로 연관 · 티치노 지역의 농업적인 자연과의 조화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Palladio의 9분할 중심적 구성 원리 적용 · 보타 고유 어휘 정착
Manno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례적인 삼각형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성벽의 개념을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uis I. Kahn의 완만한 아치 활용 · 지역적 구성요소 도입
Ligornetto (1975~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자형 평면 · 3분할 구성 · 전체 볼륨의 연결 감소에 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과 전원 사이에 놓여진 두꺼운 일종의 벽과 같은 건물로써 주택이 마을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개념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 건축의 구성원리와 지역적 특성 결합 · 티치노의 전통적 벽체구성수법
Pregassona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자형 평면 · 9분할 구성 · 균제 대칭의 형태적 안정-고전적 규범 표현 · 풍부한 공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편적인 주변건물과 대조된 원초적 형태의 소규모 주택 · 개방된 홀이 바위처럼 움푹 파인 느낌을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론을 바탕으로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공간과 티치노의 전통적인 조형언어가 절묘하게 조함. · A. Palladio의 Villa Pisanini의 영향
Massagno (197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자형 평면 · 3분할 구성 · Cadenazzo주택의 완성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치노의 자연을 디자인 concept으로 응용→ 나뭇잎의 잎맥 디자인을 파사드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의 주택에서 나타난 element 반복사용
Stabio (1980~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 평면 · 대칭에 의한 중심적 구성 - 남북 중앙축의 계단실을 경계로 공간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 평면으로 인한 입면의 부재는 건축과 주변 환경과의 직설적인 대응을 만들어 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Palladio의 로툰다 · A. Palladio의 영향을 가장 많이 표현
Viganello (198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자형 평면 · 3분할 구성 · 주요 공간은 로지아에 면하도록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경사는 휘어진 비탈길에 의해 자연스런 주택으로의 접근을 만들어냄 · 계곡을 향한 정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 건축의 구성요소에 대한 재해석
Origlio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gassona주택의 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비례와 솔직한 표현으로 특징지워지는 Neo-Tuscanism의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bio주택(80)에 구성된 Column의 변형
Morbio Superiore (198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자형 평면 · 앞뒤로 긴 형상 · 로지아의 깊이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지와 경사지의 경계에 위치함 단단한 외곽을 가진 주택 · 골짜기를 향한 정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바로크양식으로 보이는 만곡된 파사드 구성

표 2. Mario Botta 주거 건축의 특성 분석-2

주택명/지역 (연도)	입 면 도	파 사 드 구 성	재 료 및 디테일
Stabio (1965~67)		· Brise-Soleil을 이용한 로지아 구성 → 보타의 내·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공간수법으로 이후 작품에서 주공간으로 나타남	· 노출 콘크리트 · 장식 배제 · Brise-Soleil 차용
Cadenazzo (1970~71)		· Louis I. Kahn의 표층 개념 도입 · 로지아(loggia)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적극적인 관계를 시도하여 공간의 깊이를 부여	· 격자로 구성된 유리벽과 콘크리트 블록 · 단위(unit)창문을 기본모듈로 설정
Riva San Vitale (1972~73)		· 단순한 볼륨에 대한 Void와 Solid의 대비로써 음영효과 창출 · 보타의 전형적인 로지아 창출 - 빛의 유입과 공간의 수직적 통합 시도	· 붉게 도장한 브리지에 의한 액세스 강조 · 회계 질한 콘크리트 블록의 내벽
Manno (1975)		· 로지아는 에매한 공간에 구성되어 있으며 주메스의 내부공간과 파사드를 연결함 · 주메스에서 이탈된 gate로서의 파사드 구성	· 외장재는 콘크리트 블록 사용
Ligornetto (1975~76)		· 수직 개구부와 수평띠의 벽체 디자인의 대조 · 이전 작품에서 나타나는 측면구성이 아닌 중심적 로지아 구성	· 외벽은 핑크색과 회색블록을 3단 간격으로 쌓음 · 내벽은 콘크리트 블록의 내벽
Pregassona (1979)		· 단순한 볼륨의 해결로써 파사드에 구성된 수직 개구부는 내부공간의 깊이를 암시하며, 각 실의 공간과 조망은 측면과 배면의 창에 의해 해결 · 형태 요소로서의 로지아 · 파사드의 중심성 강조	· 콘크리트 블록에 대한 재료의 변화로 표현되고 있는 기단은 대지와의 관계를 설정
Massagno (1979~81)		· 2중벽의 로지아 - Winter Garden · 로지아는 정면의 정체성을 표출 · 원형 개구부에 의한 파사드의 중심성 강조	· 콘크리트 블록의 표현적 가능성 표출→외벽은 핑크색 블록 1단과 회색블록 2단을 교대로 쌓음
Stabio (1980~81)		· 중앙축의 top-light는 내부공간에 자연광을 유입하는 동시에 주택 정면 디자인의 한 요소로 작용 · 쉼기 모양의 블록에 의해 고전 건축의 의장 요소 표현	· 외벽 볼륨쌓기를 일부 수정하여 만든 기둥머리→ 계단실 볼륨의 독립성을 강하게 표출
Viganello (1981~82)		· 벽체(solid)의 texture의 변화는 내부의 주공간인 거실과 식당을 암시 · 실내 빛 유입의 근원인 로지아	· 콘크리트 블록을 쉼기형으로 쌓음으로써 빛과 그림자의 단편이 서로 어울려서 건물 정면에 생기를 불어넣는 효과
Origlio (1982)		· 수직으로 구성된 개구부에 의해 내부공간의 방향성을 추구 · 대립요소(정육면체와 원통형)에 의한 파사드의 역동성 강조	· 콘크리트 블록의 외벽과 흰 칠한 내벽, 타일바닥 · 검은색으로 도장한 창문틀과 흰색 프레임 천창의 대조
Morbio Superiore (1982~83)		· top-light에서 떨어지는 빛은 로지아의 윤곽을 명확하게 함. · 불결을 묘사한 외벽	· 쉼기형으로 놓은 블록과 보통 블록을 한단 마다 서로 어긋나게 놓음

수정하여 기둥머리를 만들어서 둥근 기둥으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계단실 볼륨의 독립성을 강하게 표출시키고 있다. 또한, 콘크리트 블록을 세로로 쌓아 지붕을 장식하고, 지붕과 내력벽의 경계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쉐기형으로 늘어놓은 블록으로 주위를 두르고 있다.

보타의 작품은 “단단한 상자”에 기하학적인 슬리트를 넣은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변의 환경과 조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소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콘크리트·블록으로 대표되는 소박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그는 이 토지와 조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타는 대립적인 재료를 맞대어 사용함으로써, 괴리적인 색들과 원초적인 형태를 충돌시킴으로써 기본적인 문화의 대립 - 비공식과 공식, 현대와 전통 - 을 상징화시키고 있다.

III. 결 론

마리오 보타의 건축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형태, 더구나 한없이 반복되는 속에 새롭게 소생하는 형태에 의해서 형성되는 작품이다. 그는 주거 건축에서도 일관성있는 구성원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리를 갖고 새로운 형태와 형식으로서 주거 건축을 발전시키고 있다. 마리오 보타의 주거 작품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그의 주거 건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1960~70년대에 계획된 마리오 보타의 주거 건축은 근대 건축의 형태구성수법, 특히 르 꼬르뷔제와 루이스 칸의 영향을 기본으로 출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타의 1980년대 주거 건축은 팔라디오의 영향을 받은 고전적 규범의 표현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러나, 1980년대의 주택은 마리오 보타 건축의 정립된 단계를 보여주며, 보타의 독특한 파사드 구성을 창출하고 있다.
2. 마리오 보타 주거 건축의 공간 구성 특성은 3개층으로 나누는 층별 공간 배분, 대칭성이 강한 단순하고 원시적인 볼륨, 정면의 중앙부에 집중적인 삭제를 통한 개구부, 2중 피막, void와 sol

id의 대비, top-light를 통한 빛의 유입 등으로 함축할 수 있다.

3. 대부분의 보타 주택 작품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만나는 완충공간으로써 파사드의 중심에 로지아를 구성하여 공간의 연속된 흐름을 유도하고 있으며, 내부공간은 top-light와 수직 개구부를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해 통합되고 있다.
4. 디테일 처리의 완성도가 높은 보타의 주거 작품은 콘크리트 블록의 모듈에 맞춘 가로 띠의 외벽 표현과 구성재를 소재로 이용한 장식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벽의 재료 및 디테일은 건물 볼륨의 독립성을 강하게 표출시키고 경계 영역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디테일 자체가 형태 구성의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1. Charles 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77
2. Charles Jencks, Mario Botta and The New Tuscanism, Architectural Design, 1983, 9/10, p85
3. Mario Botta, GA ARCHITECT: A.D.A. EDITA Tokyo, 1984
4. Noline, Mario Botta : Building and Projects:1961~82, Electa-Rizzoli, New York, 1984
5. C. Norberg Schulz, 김선수의 1인역, 세계의 건축가 I-마리오 보타, 건우사, 1985
6. Dal Co Francesco, 마리오 보타의 건축, A+U, 1986
7. Kenneth Frampton, 정영철·윤재희역, 현대건축사, 세진사, 1990
8. 原口 秀昭, 강병근역, 20세기의 주택 - 공간구성의 비교분석, 화영사, 1995
9. 이철훈, Mario Botta 주택작품의 FACADE 구성원리 분석, 경희대 석사논문, 1988
10. 이종국, Mario Botta 주택의 중층 공간 분석, 공주대학교 방재연구센터 논문집, 제2권, 1998, p.43~57